

보도시점 2026. 4. 7.(화) 배포 2026. 4. 7.(화)  
행사 시작(14:00) 이후

## 통합돌봄 시행 계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및 재가 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

- 이스란 제1차관,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 도봉구 소재 성심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에 따라,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2종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이스란 제1차관은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과 전문가로부터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재가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어르신의 병원 이동, 병원 내 수속, 약 수령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서비스와, 방문재활·영양 및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등 신규 서비스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공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스란 제1차관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현장방문 개요**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02-3490)
		담당자	사무관	유경성 (044-202-3493)



□ 개요

- (목적) '26.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제공 현장 점검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향 등 의견 수렴
- (일시) '26. 4. 7.(화), 14:00 ~ 15:10
- (장소)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 ※ 서울 도봉구 도봉로 873
- (참석자) <sup>복지부</sup>제1차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장, 통합돌봄사업과장, <sup>시설</sup>서비스 제공 기관장 3명, <sup>전문가</sup>서동민 교수(백석대), 이선영 교수(강원대), 강은나 박사(보사연), <sup>전보공단</sup>요양자원실장 및 담당자 등 약 15명
- (주요내용)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기관 점검 및 병원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제공 방향 등 논의

□ 세부 일정

구분		내용	비고
14:00~14:10	'10	티타임, 시설 현황 소개 및 라운딩	-
14:10~15:00	'50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간담회	시설 내 요양보호사 교육장
15:00~15:10	'10	마무리 발언	-

※ 세부 시간 변동 가능